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 문양과 색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esthetic Features Expressed  
by the Clothing in Ukiyoe  
- Focused on Patterns and Colors -

주저자

이 동 아 Lee, Dong-a

강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angwon University  
dawn-a@hanmail.net

투고일	2019.09.08	심사일	2019.10.24	게재확정일	2019.10.28
-----	------------	-----	------------	-------	------------

## 목 차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2. 우키요에(浮世繪)에 관한 고찰

- 2.1. 우키요에 발생 및 '이키'의 개념
- 2.2. 에도시대에 나타난 복식 문양의 종류 및 특징
- 2.3. 에도시대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미

### 3. 우키요에(浮世繪) 복식에 표현된 미적특성

- 3.1. 우키요에 복식에 나타난 문양과 색채
- 3.2. 우키요에 여성복식에 나타난 미적특성

### 4. 결과 및 요약

### 참고문헌

### Keyword

우키요에, 미적특성, 이키, 문양, 색채  
Ukiyoe, Aesthetic Features, Iki, Patterns,  
Colors

## Abstract

Ukiyoe(浮世繪, うきよゑ) is the Japanese folk painting and showed the clothing culture and aesthetic consciousness at that time through the detailed expression on clothing. The aesthetic features observed on the patterns and colors of clothing for women were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iki', the aesthetic consciousness during the Edo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three properties of 'iki', the dual tens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e mutual supplementation in the kinds, sizes, arrangement and configuration of patterns expressed on total 52 pieces of clothing for women and in Kosodae(basic Japanese robe) and Obi(belt) of colors, the difference of brightness and chroma between background colors and pattern colors. Then, the aesthetic features of patterns and colors of clothing for women in Ukiyoe are summarized below. First, coquetry expressed the lyric aesthetic and splendor as the implication based on the dual tension. Next, the spirit was demonstrated by the aesthetic sense of exaggeration and activeness on the basis of the ethical ideal. Finally, resignation was expressed by elegance and plainness on the basis of simplicity(aesthetic in a daily life).

## 논문요약

우키요에(浮世繪, うきよゑ)는 일본의 에도시대 풍속화로 이는 당시의 미의식 '이키(いき)'가 반영되어있다. 이 중 여성 인물화의 복식에 나타난 문양과 색채의 조화는 미의식 '이키(いき)'가 표현된 대표적 요소이며, 이를 통해 일본 특유의 미적감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동경국립박물관, 오타기념미술관, Japan Journeys(도서)의 여성인물화는 총 52점 중 특수한 목적 및 풍경화중심의 인물화를 제외한 총 14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고소데와 오비에 나타난 문양과 색채의 유기적 관계는 '이키(いき :이원적 긴장감)'의 3가지 속성과 우키요에의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문양과 색채의 조화를 통해 나타난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태(媚態, びたい)는 이원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절제성으로 이는 서정미와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기(意氣, いき)는 이상성을 바탕으로 과장미와 활발함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체념(諦念, ていねん)은 단순성(일상생활 속의 미)을 바탕으로 세련미와 소박함으로 표현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우키요에(浮世繪, うきよえ)는 다양한 인물화, 생활풍습 및 풍경화등을 묘사한 일본의 에도시대 풍속화로 우키요에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는 에도시대의 미의식 ‘이키(粹, いき)’가 반영되어 있다. ‘이키’는 이원적인장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의식으로 여성인물화에서는 인물화의 자세, 구도, 복식등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복식에서는 고소테와 오비의 형태적 특징 보다는 문양과 색채의 상호 조화를 통해 ‘이키’의 특성인 화려하면서도 세련되고 정제된 소박함이 표현되고 있다. 구키슈조 역시 ‘형상(문양)과 색채를 통해 이키’의 예술적 표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적감성은 자포니즘(Japonism)으로 이어져 일본의 전통복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패션디자이너들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sup>1)</sup>. 반면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이너들은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적인 미적감성을 알리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나라만의 미적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된다면, 한국적 미(美)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키요에에 나타난 고소테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문양의 종류와 구성 및 색채의 특징을 각각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키’를 바탕으로 고소테와 오비의 표현된 문양과 색채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미적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키요에 여성인물화의 고소테와 오비의 문양 및 색채간의 상호조화 속에 나타난 미적감성을 ‘이키’의 대표적 특성인 미태(媚態, びたい), 의기(意氣, いき), 체념(諦念, ていねん)을 통해 미적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여성복식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우리나라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한복의 미적특성을 찾는 데 발판이 되고자 한다.

1) 양지나. (2009). 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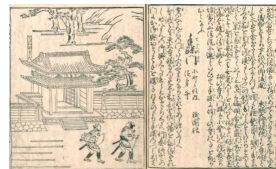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동경국립박물관(12점)과 오타기념미술관(5점)에 소장된 우키요에와 도서 ‘Japan Journeys(35점)’에 나타난 여성인물화 총 52점이며, 전체적 문양, 색채, 구성의 종류 등에 대한 간략한 고찰 후 특수한 목적인 연극 홍보용 인물 및 거리 풍경을 중심으로 한 여성인물화를 제외한 총 14점(일반 여성과 게이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총 14점의 고소테와 오비에 나타난 문양과 색채의 조화 속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미의식 ‘이키’의 대표 연구자 구키슈조의 ‘이키의 구조’의 의식현상과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우키요에의 특성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 2. 우키요에(浮世繪)에 관한 고찰

### 2.1. 우키요에 발생 및 ‘이키’의 개념

우키요에<sup>2)</sup>는 에도시대(江戸, 1603~1867)에 새롭게 정착되기 시작한 미술용어로 우키요에 명칭은 「배해서」(排諧書, 延宝9年 1681)에 ‘우키요에의 아래에 자라난 생각의 풀<sup>3)</sup>’에서 최초로 나타난다<sup>4)</sup>. 우키요에의 확산은 히시카와 모로노부(菱川師宣, ?~1694:삽화화가)를 시작으로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1642~1693)소설의 삽화가 그림책으로 독립<sup>5)</sup>하게 되었다.



[그림 1] 奈良名所八重櫻, 1678년(延宝6) (출처 :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그림 2] 好色一代男, 1682(天和2) (출처 :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이 후 스즈키 노부히로(鈴木春信, 1725?~1770)에 의

2) 우키요는 ‘근심스러운 세상(憂世)’에서 ‘덧없는 세상(浮世), 속세’라는 의미로 우키요에는 니시키에(錦繪, にしき)를 지칭하나 단색판화와 육필화도 포함하고 있다. (고야사이다다시, 이세경 옮김. (2004). 우키요에의 미(美), 서울: 이다미디어, pp.14-15에서 인용.)  
 3) 아키야마 테츠키즈저, 이성미 옮김. (1992). 일본회화사, 서울: 예경, p.212.  
 4) 자료출처 : [http://www.hat.hi-ho.ne.jp/mochi/ukiyo/ukiyo\\_05.htm](http://www.hat.hi-ho.ne.jp/mochi/ukiyo/ukiyo_05.htm). 자료 검색일. 2019.5.2  
 5) 자료출처 : <https://www.ndl.go.jp>.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자료검색일. 2019.5.2; 임미현. (2018). 조선후기 미인도와 일본 에도시대 (1603-1867)우키요에 미인화의 관계성 고찰, *역사와 담론*, 88, p.276.

해 확산된 우키요에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목판화(니시키에<sup>6)</sup>, 錦絵, にしきえ)의 발전과 출판업의 발달<sup>7)</sup>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우키요에 주제는 일반 생활 풍습, 유곽(遊廓)의 게이샤, 일반 여성등이 포함된 그림을 일컫는 미인화(美人画, びじんが), 가부키 배우를 그린 야쿠사(役者絵, やくしゃえ), 명승지 풍경화 메이쇼에(名所絵, めいしょえ), 스모(相撲, すもう), 무사(武士, ぶし)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우키요에의 특징은 주제, 구도, 색채, 기능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제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은 섬세함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친근성, 풍속성, 과장성, 관능성, 서정성으로 대표되며, 구도적 측면에서는 조형성, 역동성, 근형상도법, 색채를 통해 화려함 또는 수수함, 소박함등이 나타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sup>8)</sup>로서 양산(量産)성, 경제성, 미디어의 기능 속에 패션잡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우키요에의 특징

연구자	우키요에의 특징	
이미림 (2018) <sup>9)</sup>	주제	대중성, 풍속성, 이상성, 친근성, 향락성, 오락성, 풍자성, 호기심
	기능	양산성과 경제성, 미디어의 기능
최무석 (2017) <sup>10)</sup>	주제	대중성, 관능, 향락, 유희, 이키(粹)
	기능	패션잡지로서의 역할
홍지연 (2017) <sup>11)</sup>	주제	대중성, 향락, 과장성, 풍자성, 사실주의
	구도	대조성, 조형성, 역동성, 근형상도법
	색채	화려하고 세련된 색채, 서정적 색채
여승화 (2015) <sup>12)</sup>	주제	이키(粹), 슌이(粹) 현실주의, 사회적 공허함

이와 같이 자포니즘의 발판이 된 우키요에의 표현특징은 일본을 대표하는 미의식<sup>13)</sup> 이키(粹, 이키, 同字: 粹, 절제된 미의식: 이원적 긴장감)<sup>14)</sup>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키(粹)의 일

본어 사전에 나타난 명사와 형용·동사 어휘는 기질, 태도, 옷차림, 관능적 매력, 짜임새등이 있는 것으로 멋진사람, 멋진모습, 멋진무늬<sup>15)</sup>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키’의 한문 粹(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에 ‘순수하다, 아름답다, 오롯하다, 정밀하다, 변하지 않다, 부서지다<sup>16)</sup>’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잡하지 않게 되다’이며, 「편해(篇海)」에 ‘순(純)으로 정밀하다.’<sup>17)</sup>라 하였고, 「역·건괘(易·乾卦)」에 ‘강건, 중정, 순수, 정교하다’의 소(疏)에 ‘순수하여 섞이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8)</sup>. 따라서 ‘粹(이키)’는 순수, 정밀, 강건, 멋진, 매력, 태도, 기질등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키’는 일본학자들의 연구 논문에서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각기 다른 표기를 언급함을 통해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이에 ‘이키’의 대표학자 구키슈조(九鬼周造, 1888~1941)의 저서 ‘이키의 구조(いきの構造, 1930)’를 통해 ‘이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3] 이키의 의식현상 : 내포적 구조와 외연적 구조

구조		개념		
내포적 구조	미태(媚態)	일원적 자아가 이성을 조정하여 자기와 이성과 사이에서 가능성 있는 관계를 구성하는 이원적 태도 - (게이샤의 행동, 외양을 통해 설명)		
	의기(意氣)	미태를 드러내면서도 상대에 대한 일종의 반항으로 어느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그 사이에 존재하며, 무사적 속성이 응축되어 있음(세련미, 위세, 활달함등이 기품이 있어야 함)		
	체념(諦念)	집착을 탈피한 무관심, 미련이 없는 시원한 마음가짐 - (화려한 덩굴무늬 꽃모양이 아닌 세로무늬와 약간 그을린 회갈색(때를 벗은 아름다움))		
외연적 구조	8지 미적 범주	인성적 일반성	가치적	고상함 - 천함 (유가치적) (비가치적)
			비가치적	화려함 - 수수함 (적극적) (소극적)
	이성적 특수성	가치적	가치적	의기 - 촌스러움 (유가치적) (비가치적)
			비가치적	단맛 - 떼은맛 (적극적) (소극적)

6) 繪本(にしきえ)는 明和年間(1764-1771)에 시작된 다색 인쇄 판화.  
 7) 송은경. (2008). 에도(江戸) 시대 우키요에(浮世繪)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8) 양지나. (2009). Op. cit., p.11.  
 9) 이미림. (2018). 우키요에 출판문화의 특색에 관한 일고찰, *일본문화연구*, 65, pp.173-178.  
 10) 최무석. (2017). 일본 우키요에 미인화에 나타난 고소데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4-16.  
 11) 홍지연. (2017).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본 민화와 우키요에의 비교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017, pp.167-169, pp.177-180.  
 12) 여승화. (2015). 현대 의상에 나타난 에도(江戸) 복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20.  
 13) 사사키치카. (2007). 일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 전통미에 대한 연구, *복식*, 55(7), p.20.

14) 이키(粹, 이키)는 권력자들에 저항하던 조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유희문화와 함께 유곽과 그 주변에서 사는 사 람들로부터 시작된 미의식.  
 15) 「意氣」 [名·形動] : から轉じた語 : 氣質・態度・身なりなどがさっぱりとあかぬけして、しかも色氣があること。また、そのさま。「粹な姿」「粹な柄」「粹な店」⇔野暮(やぼ)。 자료출처 : <https://dictionary.goo.ne.jp/word/いき/>. 자료검색일. 2019.5.17.  
 16) 漢韓大辭典. (1975). 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p.1350.  
 17) 「說文解字」卷七 : 粹 : 不雜也 - には「雜(まじ)らざるなり」とある。粹は、その異体字で[篇海]に「純なり。精微なり」とある。 자료출처 : <https://dictionary.goo.ne.jp/word/いき/>. 자료검색일. 2019.5.17.  
 18) 「易·乾卦」 : 剛健中正, 純粹精也。 <疏> 純粹, 不雜也。  
 19) 내포적 구조 속에 이키는 일본 문화 특유의 도덕적 이상주

[표 2]를 정리하면, ‘이키’의 의식현상은 내포적구조와 외연적 구조로 설명할 수 있으며<sup>20)</sup>, 이는 세 가지 철학(일본 토속신앙, 유교, 불교)을 기본<sup>21)</sup>으로 한다. 내포적 구조는 미태(媚態, びたい : 이원적긴장감), 의기(意氣, いき), 체념(諦念, ていねん)<sup>22)</sup> 3가지이며, 미태의 이원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다. 외연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유연함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상반되는 지각 감각을 8가지를 이키의 미적범주<sup>23)</sup>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이키의 구조는 다시 자연적 표현과 예술적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자연적 표현은 인물의 제스처, 복식의 착장 형태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예술적 표현은 형상(문양)과 색채로 구분하였다. 이에 예술적 표현을 살펴보면, 대표적 형상(문양)은 평행선<sup>24)</sup>으로 이는 줄무늬로 표현되며, 가로줄보다는 평행선을 쉽게 자각되는 세로줄이 더 ‘이키’하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5)</sup>. 색채는 회색, 갈색계열, 청색계열로 대표되며, ‘이키한 색이란 화려한 체험에 동반되는 소극적 잔상이며, 보색 잔상으로서 차가운 색 속에 침착함을 받아들이는 것<sup>26)</sup>’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속성은 현재 ‘이키’의 개념 및 미적특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는 고소데와 오비의 문양과 색채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예술적 표현(문양과 색채)에 나타난 이키

예술적 표현(문양과 색채)에 나타난 이키				
문양	이키한 표현	인공문	줄무늬	평행선
	이키하지 않음	자연문	꽃, 덩굴무늬등	자유 곡선
색채	이키한 표현	수수함	무채색, 한색계열, 중색	회색, 갈색, 청색, 검정
	이키하지 않음	화려함	난색계열	빨강, 노랑등

의와 종교적 비현실성의 형상인(形相因)에 의해 질료인(質料因)인 미태가 자기 존재실현을 완성한 것이라고 함. (九鬼周造, 이운정 옮김. (2001). Op. cit., p.31.에서 인용.)  
 20) 九鬼周造, 이운정 옮김. (2001). 이키의 구조, 서울: 한일문화교류센터.  
 21) 손정화. (2006). 구키슈조(九鬼周造)의 ‘이키’의 구조 연구-에도시대 미의식의 현대적 해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22) Ibid., pp.24-30.  
 23) Ibid., pp.18-20.  
 24) 구키슈조는 평행선의 의미를 무목적성, 무관심성이 시각적 객관화를 통해 미태의 이원성이 표출된다고 함. (九鬼周造, 이운정 옮김. (2001). Op. cit., pp.59-61.에서 인용.)  
 25) 九鬼周造, 이운정 옮김. (2001). Op. cit., pp.59-61.  
 26) Ibid., p.70.

## 2.2. 에도시대에 나타난 복식 문양의 종류 및 특징

에도시대에 나타난 여성복식은 기모노의 전신인 고소데(小袖, こそで)로 이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는 크게 자연문양과 인공문양으로 구분되어지며,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표 4].




[표 4] 고소데에 표현된 문양 종류

문양	세부 문양	
자연문	식물문	매화, 벚꽃 국화, 단풍, 은행 파초, 소나무, 당초등
	동물문	학, 봉황, 참새, 제비, 기린등
	자연풍경문	강, 갈대, 풀, 구름, 나비등
인공문	기하문	줄무늬, 격자, 점, 별, 만자(卍)등
	기물문	부채, 조개, 악기, 동전, 책
	문자문	수(壽), 복(福)등






고소데에 표현된 다양한 문양들은 종류에 관계없이 배치방법에 따라 하나의 회화작품과 같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시 여성의복에 자수, 금사등의 사용을 금지<sup>27)</sup>하면서 방염기법 중 하나인 유젠염(友禪染, ゆうぜん)<sup>28)</sup>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작고 섬세하며 다양한 문양과 색상표현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데에 표현된 다양한 문양은 배치는 독특한 복식미를 형성하고 있으며, 문양배치 형태의 종류 및 명칭은 크게 견거(肩裾), 편신체(片身替), 단체(段替), 관문(寛文), 상방전개(上方展開), 할(割), 반(半), 거(裾) 총 8가지로 대표<sup>29)</sup>될 수 있고, 전체에 문양이 표현된 형태를 단체구성<sup>30)</sup>이라 한다[표 5].

[표 5] 고소데에 표현된 문양배치구성

복식자료출처 : <https://www.tnm.jp/> (소장처 : 東京國立博物館)

no	종류	특징	복식
1	견거(肩裾)	어깨-가슴에 걸친 상단과 옷단에만 문양 배치	
2	편신체(片身替)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문양과 색을 다르게 대비	
3	단체(段替)	편신체처럼 문양과 색을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옷 전체를 4,8,12,16등분 하여 상하 좌우에 각각 다른 문양, 다른 천을 연결하여 제작(patch)	

27) 河上繁樹. (2008). 江戸時代の小袖に関する復元的な研究について, 東西學院大學美學論究, p.23.  
 28) 유젠염(友禪染, ゆうぜん)이란 풀칠로 방염을 해가며 다양한 염색을 하는 방법. (元井能. (1969). 日本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p.72.에서 인용.)  
 29) 北村哲郎, 이자연 옮김. (1999). 日本 服飾史, 서울: 경춘사, pp.136-137. (양지나. (2009). Op. cit., pp.64-65.에서 재인용.)  
 30) 최무석. (2017). Op. cit., p.50.

no	종류	특징	복식
4	관문 (寬文)	어깨에서 등 오른쪽 반신(半身)에 걸쳐 현무늬로 된 큰 문양과 왼쪽 반신은 거의 공백으로 구성된 형식	
5	상방 전개 (上方 展開)	옷단에서 어깨를 향하여 문양이 전개되는 형태로 기존 형식보다 문양 구성의 안정감을 줌	
6	할(割)	허리를 경계로 위 아래에 다른 문양 배치	
7	반(半)	할하고 비슷하나 허리 윗부분은 공백으로 구성	
8	거(裾)	소수의 자락 둘레에만 문양을 배치한 형	

### 2.3. 에도시대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미

에도시대 복식에 나타난 색채 중 대표적인 것은 이키의 색인 갈색계열의 차색(茶色), 청색계열의 감색(紺色, 藍色)과 회색, 검정색과 간색, 적색등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간색의 사용은 일본 복식 특유의 중첩착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상하고 우아한 미를 보여준다. 또한 적색은 우리나라와 같이 귀족계층에서 사용되었던 색상이나 서민들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앞서 고찰한 차색, 청색, 회색등 이키의 색에 대해서 구키슈조<sup>31)</sup>는 회색은 이키의 체념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나 미태함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색채라 하였다. 갈색은 차색계열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려한 색조에서 검정을 띠면서 포화도를 감소시킨 색으로 화려한 성질과 포화도의 감소에 따른 체념의 미태를 표현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에도시대 갈색 색명은 추상적 성질, 색을 가진 대상, 배우의 이름등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청색은 일본을 대표하는 색상 중 하나로 구키슈조는 청색(녹색, 청보라)이 포화도가 감소한 색은 아니지만 검정색과 어울리며, 동화작용으로서 ‘이키’하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키의 색채는 청색<sup>32)</sup>, 갈색(차색, 茶色<sup>33)</sup>), 회색, 검정색등<sup>34)</sup> 차분한 색채에

31) 九鬼周造, 이윤정 옮김. (2001). Op. cit., pp.69-71.

32) 청색 또는 감색(紺色, 藍色)은 쪽염을 통한 색상으로 우수한 견뢰도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선호되었고, 특히 방염기법(緞)을 통한 문양 표현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이다.

33) 차색(茶色)이란 전통 차도(茶の湯)에서 발생한 미의식인 와비(侘, わび)와 사비(錆, さび)에서 시작되었다. 가부키배우들이 많이 사용하여 야쿠사색(役者色)이라고도 하였고, 당시 차색계열의 색은 153종에 달한다. (음정선. (2005). Op. cit., p.61. 인용.)

34) 元井 能. (1969). 日本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p.84.

고명도의 색채가 더해져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수수함을 표현하고 있다.


### 3. 우키요에(浮世繪) 복식에 표현된 미적특성



#### 3.1. 우키요에 복식에 나타난 문양과 색채

본 장에서는 앞서 연구방법 및 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경국립박물관(12점), 오타기념미술관(5점), 도서 Japan Journeys (35점), 총 52점의 여성인물에 나타난 특성을 다음과 같다. 먼저, 문양에 대해 고찰하면, 배치형태는 단체(33점), 반(半:12점), 거(裾:4점), 할(割:2점)으로 나타났다. 문양의 종류 중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은 자연문으로 꽃(33점), 식물문(25점), 과일문(3점)이며, 동물문은 학(1점), 체비(1점)으로 나타났다. 인공문 중 기하문에 해당되는 줄무늬(7점), 격자(5점), 별(5점), 그 외(12점), 기물문은 조개(2점), 부채(1점)으로 분석되었다. 각 문양 간 조합은 자연문과 기하문(28점), 자연문과 자연문(18점), 기하문과 기하문(6점)으로 복합문의 형태가 나타났다. 모든 복식은 고소테와 오비를 다른 문양을 사용하여 복합문 형태로 구성하고 있으며, 고소테 또는 오비 각각에서 복합문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으로 색채의 특징은 저채도 고명도의 계열로 앞서 언급한 미의식 이키에 의한 색채 배열(41점)이며, 간색에 의한 부드러운 색채는(3점), 화려한 색채구성은(8점)으로 나타났다. 미의식 이키에 의한 색채를 살펴보면 갈색과 차색계열과 청색계열, 회색계열은 복식 전체에 나타나고 있으며, 검정색은 깃에 주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또한 청색계열은 적색, 노란색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화려한 색채는 동양적 색채관인 음양오행사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수한 목적인 연극홍보용 및 연극무대 뒤의 인물모습 그리고 거리 풍경을 중심으로 한 인물화를 제외한 총 14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우키요에에 표현된 문양 및 색채

no	종류	구성		특징	
1		깃		배치	단체
		몸판			
		오비		종류	과실
	雨夜宮詣 美人圖	18世紀, 鈴木春信(1725~1770)	소장처 : 東京國立博物館	종류	줄문양

no	종류	구성		특징	
2	 죄측부터 여인 1 여인 2	깃			여인 1,2 공통
		몸판 1			배치 거(裾)
		옷단 1			종류 단풍
		오비 1			종류 ?
		몸판 2			배치 반(半)
		옷단 2			종류 국화
오비 2			종류 ?		
東西南北 美人	18世紀, 北尾重政(1739-1820) 소장처 : 東京國立博物館				
3		깃			배치 단체
		몸판			종류 인공
		옷단			종류 파초잎
세이로 게이샤찬	18世紀, 鳥文齋榮之(1756-1829) 소장처 : 東京國立博物館				
4		깃			배치 거(裾)
		몸판			종류 벗꽃
		옷단			종류 기하
		오비			종류 ?
세이로 게이샤찬	18世紀, 鳥文齋榮之(1756-1829) 소장처 : 東京國立博物館				
5		깃			배치 단체
		몸판			종류 점문양
		옷단			종류 당초
		오비			종류 화문
娘日時計	1789~1801, 喜多川歌麿(1753-1806) 소장처 : 東京國立博物館				
6	 죄측부터 여인 1 여인 2	깃			여인 1,2 공통
		몸판 1			배치 단체
		옷단 1			종류 인공
		오비 1			종류 구문
		몸판 2			배치 단체
		옷단 2			종류 기하
오비 2			종류 자연		
雲母摺	1781~1808, 榮松齋長喜(1725-1795) 소장처 : 東京國立博物館				
7		깃			배치 단체
		몸판			종류 나비
		옷단			종류 -
		오비			종류 -
星の霜当代風俗	1819, 歌川國貞(1786~1865) 소장처 : 太田記念美術館				
8		깃			배치 ?
		몸판			종류 화문
		옷단			종류 화문
오비			종류 기하		
모모도 초상화	1793, 喜多川歌麿(1753-1806) 소장처 : 太田記念美術館				
9		깃			배치 할(割)
		몸판			종류 보문
		옷단			종류 부채, 강
		오비			종류 새, 꽃, 기하
Tea Ceremony	1895, 豊原周延(1838-1912) 출처 : Japan Journey, p.40.				

no	종류	구성		특징	
10		깃			배치 단체
		몸판			종류 벗꽃, 세로줄
		옷단			종류 료(輪)
오비			종류 료(輪)		
The Actor	1925, 名取春山(1886-1960) 출처 : Japan Journey, p.126.				
11		깃			배치 단체
		몸판			종류 벗꽃
		옷단			종류 구름
		오비			종류 구름
Beauty Hinazo	1922, 吉川觀方(1894-1979) 출처 : Japan Journey, p.135.				
12	 죄측부터 여인 1 여인 2	깃 1			배치 단체
		몸판 1			종류 화문, 기하문
		옷단 1			종류 격자
		오비 1			종류 격자
		깃 2			배치 단체
		몸판 2			종류 화문
옷단 2			종류 화문		
오비 2			종류 기하, 화문		
Fireflies at Ochiai	1864, 歌川國貞(1786-1825) 출처 : Japan Journey, p.61.				
13	 죄측부터 여인 1 여인 2	깃 1			배치 단체
		몸판 1			종류 기하
		옷단 1			종류 원, 격자
		오비 1			종류 원, 격자
		깃 2			배치 반(半)
		몸판 2			종류 조개
옷단 2			종류 조개		
오비 2			종류 격자		
The Third Month	1772-1775, 歌川豊春(1735-1814) 출처 : Japan Journey, p.14.				
14		깃			배치 단체
		몸판			종류 점, 꽃, 기하
		옷단			종류 점, 꽃, 기하
		오비			종류 점, 꽃, 기하
Umegae	1884, 豊原國周(1835-1900) 출처 : Japan Journey, p.128.				

### 3.2. 우키요에 여성복식에 나타난 미적특성

앞서 우키요에에 표현된 여성복식의 문양은 복합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색채는 문양 색과 바탕색이 조화를 이루어 복식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문양과 색채의 조화를 통해 나타난 미적특성을 고찰하고자, 이원적 긴장감, 절제된 미의식으로 대표되는 '이키'의 내포적 구조 3가지 특성의 개념인 '미태(媚態, びたい)'는 게이샤의 행동과 외양을 통해 일원적 자아가 이성을 조정하는 하는 것, '의기(意氣, いき)는 일종의 반항으로 세련미, 위세, 활달함, 기품', '체념(諦

念, ていねん)은 무관심, 때를 벗은 아름다움'으로 이를 첫 번째 키워드로 하였다. 두 번째는 외연적 구조를 설명한 이원적 요소 중 '고상함-천함', '화려함-수수함', '의기-존스러움' 3가지를 키워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우키요에 특성 중 대중성, 풍속성, 이상성, 친근성, 오락성, 향락성, 관능적, 화려하고 세련된 색채, 서정적 색채를 키워드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키'의 대표적 특성인 '미태'는 절제성으로 서정미와 화려함, '의기'는 이상성으로 과장미와 활발함, '체념'은 단순성(일상의 미)으로 세련미와 소박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 6]에 나타난 고소데와 오비의 문양과 색채의 조화로 나타난 미적특성은 다음과 같다.

### 3.2.1. 미태(절제성) : 서정미, 화려함

미태는 절제된 미의식, 이원적 긴장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의기와 체념 또한 미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미태는 절제성으로 서정미(고상함 내포)와 화려함이 표현된 복식은 [표 6]의 3,4,5,6,8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문양배치는 단체 또는 '거'이며, 종류는 기하문과 화문 또는 식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소데가 화문일 경우 오비는 기하문 또는 반대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색채는 모두 이키한 색이며, 깃과 몸판은 같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3번 고소데는 녹색, 오비는 적색계열로 하였으나 모두 간색계열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바탕천과 문양의 채도를 크게 두지 않고 있다. 고소데의 문양 배치는 단체로 작은 인공문이 전체적으로 드문드문 시문되어 있으며, 오비의 문양은 식물문을 화려하게 구성하고 있어 서정미와 화려함 모두 드러난 듯, 드러나지 않은 듯 하게 표현되어 있다. 4, 5번의 고소데는 이키의 대표적 색인 회색이며, 오비는 부드러운 적색의 간색계열로 구성하여 회색이 주는 이키의 부족한 속성을 보완하고 있다. 4번의 문양배치는 '거'형으로 짙은 회색에 옷단에 명조차를 두어 화문을 배치하였고, 5번의 문양배치는 단체이나 문양과 바탕색의 명도차를 크게 두지 않고 있다. 명도차가 나지 않아 자칫 미태함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을 고소데 전체에

문양을 가득 채워 미태함을 보완하고 있어 문양과 색채의 상호보완을 통해 이키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2번, 6번 8번은 유사한 형식미가 나타나므로 8번 고소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소데는 이키한 검정색이며, 오비는 이키한 청색계열의 녹색으로 앞서 살펴본 이키한 색과 이키하지 않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녹색은 청색계열에 포함되기도 하나 따뜻한 계열에도 속할 수 있는 중간색 계열로 구키슈조가 청색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이 검정을 안을 수 있는 이키한 선명한 색이 미태함을 완성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고소데의 문양배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작은 화문이 전체에 드문 드문 시문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작은 크기의 화문은 바탕색과 명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오비의 문양은 빛의 반사에 의해 드러난 듯, 드러나지 않는 스민문이며, 이키하지 않은 화문을 이키한 줄 문 사이에 배치하였다. 이 역시 문양과 색채를 통해 미태가 표현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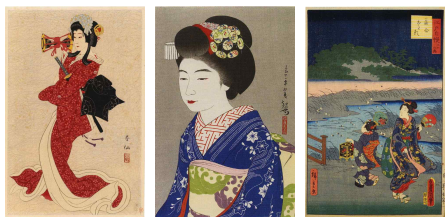
[그림 3] 미태 (독시성) : 서정미-화려함 (표 6의 2, 3, 4, 5, 6, 8)

### 3.2.2. 의기(이상성) : 과장미, 활발함

의기는 이상성으로 무사(武士)의 기개, 강인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지며, 세련미, 위세, 활발함은 기품이 있어야 하므로 과장미와 활발함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에 과장미와 활발함은 [표 6]의 10, 11, 12로 전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문양 배치는 모두 단체이며, 고소데의 문양 또한 화문, 오비는 기하문, 화문, 자연문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고소데의 색은 선명도가 높은 적색과 청색이며, 오비는 '이키'한

색 또는 붉은색으로 나타났고, 깃과 몸판은 같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10번 고소데는 이키하지 않은 적색이며, 오비를 통해 이키함을 표현하고 있다. 고소데의 문양은 중간 크기의 화문과 짧은 세로줄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고, 오비의 문양은 룬(輪)으로 비교적 문양의 크기가 커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10번의 고소데는 선명도가 높은 청색, 오비는 이키한 색상과 백색을 통해 과장성과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데의 문양은 빗꽃과 곡선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오비는 구름문양으로 문양 자체를 통해서 이키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문양과 색채의 연관성을 통해 고찰해보면, 고소데의 청색에 백색에 가까운 화문과 오비의 구름문양을 상단에만 배치하여 세로줄 형태를 은근히 표현함에 따라 문양과 색채가 연관성을 가지고 과장되고 활발한 이키가 표현되고 있다. 12번의 여인 1, 2의 고소데 색은 청색이며, 오비는 여인 1은 적색, 여인2는 녹색이다. 여인 1의 고소데 문양은 아웃라인은 화문이며, 화문안에 다양한 기하문을 선으로 표현하고, 오비는 주황색을 바탕으로 적색과 노란색이 선의 굵기를 달리하고 있다. 여인 2의 고소데의 문양은 노란색의 화문과 드문드문 적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비는 녹색을 바탕으로 청색계열과 연두노랑색으로 표현되고 있어, 여인 1과 여인 2는 음양오행의 색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키의 관점에서는 과장된 화려함을 통한 활발함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림 4] 의기 (이상성) : 과장미-활발함 (표 6의 10, 11, 12)

### 3.2.3. 체념(단순성) : 세련미, 소박함

체념은 단순성으로 여기서 언급한 단순성의 의미는 '일상생활 속의 미'이며, 세련미와 소박함(일상속 '이키'함)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에 세련미와 소박함은 [표 6]의 1, 7, 9, 13,

14로 전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문양 배치는 9번 '반'을 제외하고 단체이며, 고소데와 오비는 다양한 문양이다. 색채는 이키한 색채로 나타났고, 14번을 제외하고 깃과 몸판은 같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1번의 고소데는 이키의 대표적 색상 중 하나인 갈색계열의 짙은 갈색이며, 오비는 톤 다운된 노란색과 붉은 갈색으로 소박한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다. 고소데의 문양은 이키하지 않은 과실문이며, 오비는 이키를 대표하는 세로 줄무늬로 세로줄 사이에 빗살무늬를 배치하였다. 고소데의 이키한 바탕색에 크기가 크고, 명도차가 확실한 문양으로 배치하고, 오비는 채도가 낮은 세로 빗살 무늬에 가는 붉은 갈색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이키함과 이키하지 않은 구성을 통해 세련미와 소박함을 표현하고 있다. 7번 고소데는 청보라이고 오비는 적색의 보라로 같은 보라 계열이나 이키한 청보라와 이키하지 않은 적보라로 상반된 구성을 하고 있다. 고소데의 문양은 기하자유곡선이며, 오비의 문양은 드러나지 않는 스핀문으로하여 고소데의 세련미와 상반되는 소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9번의 고소데는 연한 회청색이고, 오비는 녹색이며, 고소데의 문양 배치는 '활'형으로 옷단에는 부채와 강을 통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며, 허리 위 상단의 몸판은 작은 크기의 보문(寶紋)을 드문 드문 시문하였고, 오비의 문양은 새, 꽃, 기하로 이루어 졌다. 고소데의 상단은 이키한 색과 작은 문양을 통해 소박미를 보여주고 옷단에는 이키하지 않은 노란색 바탕과 문양을 통해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오비는 다양한 복합문양을 패턴화 하여 일정한 규칙성을 주고 있으며, 바탕천과 명도차이를 두어 더욱 일상생활 속의 소박함과 세련미를 나타내고 있다. 13번 여인 1의 고소데는 녹색, 여인2는 차색계열이며, 여인 1의 오비는 바탕색보다 톤 다운된 녹색, 여인 2의 오비역시 간색계열의 적색과 백색에 가까운 색으로 나타났다. 여인 1 고소데 문양 배치는 단체이며, 종류는 기하문이고, 오비는 화문형에 가까운 원형 안에 격자로 시문하였으며, 여인 2의 배치는 '반', 종류는 조개이고, 오비는 바둑판이다. 여인 1의 고소데에 나타난 문양과 색채는 비교적 큰 크기의 문양이 바탕

색과 큰 명도차이를 두고, 오비 역시 같은 계열의 톤 다운 색채에 검정 아웃라인 안에 격자 무늬를 배치함에 따라 고소데와 오비를 같은 계열의 색채로 소박미를 문양을 통해 세련미가 표현되고 있다. 여인 2의 고소데에 나타난 문양과 색채는 이키함을 상호보완적이며, 오비는 이키한 세로줄무늬와 이키함이 조금 덜 드러나는 가로줄무늬로 구성된 바둑판 형태이며, 이는 숨겨진 이키함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4번은 오비를 하고 있지 않아 고소데로만 고찰하였다. 고소데는 청색, 회청색과 어두운 톤의 녹색을 주로 하고, 세 가지 색 모두 세로줄 무늬이나 청색과 회청색은 짧은 길이로하여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였고, 어두운 톤의 녹색 줄 무늬에 백색에 가까운 화문을 배치하여 세련미와 소박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체념(단순성) : 세련미-소박함 (표 6의 1, 7, 9, 13, 14)

#### 4. 결과 및 요약

본 연구는 미의식 ‘이키’가 반영된 우키요에의 여성인물화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의 상호조화를 통해 나타난 미적특성에 관한 고찰로 이는 다음과 같다.

우키요에는 에도시대에 니시키에(다색판화)가 발전하면서 크게 유행한 일본의 풍속화로 ‘세상을 떠다니는 그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키요에는 인물화, 풍경화, 연극 홍보용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게이샤, 일반여성, 가부키 배우 등을 아우르는 미인화가 주를 이루며, 이를 통해 당시의 다양한 계층의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일본 특유의 미적감성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우키요에는 서양으로 유입되어 자포니즘의 시작이 되었다. 이는 에도시대 미의식 ‘이키’를 통해 우키요에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키’는 의식구조 중 ‘미태’가 가지고 있는 이원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키’ 학자 구키슈조에 의하면 ‘이키’는 절제된, 목시적인, 기품, 기개, 관능, 운명에 대한 체념과 담담함등이며, 이는 크게, 미태, 의기, 체념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예술적 표현에 나타난 ‘이키’는 형상(문양)과 색채로 설명되며, 대표적 형상 즉 문양은 세로줄(평행선), 색채는 갈색, 청색, 회색으로 표현된다.

이에 구키슈조의 ‘이키’의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우키요에 특성을 바탕으로 총 14점의 고소데와 오비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과 색채 조화를 통한 미적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태(절제성):서정미, 화려함으로 고소데는 이키색과 이키하지 않은 자연문, 오비는 이키하지 않은 적색계열의 간색과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키하지 않은 고소데의 작은 문양은 바탕천과 명도의 차이와 오비의 이키하지 않은 자연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고소데의 회색이나 검정색은 서정미를 표현한다면, 미태의 부족은 고소데의 문양 배치 및 명도차, 오비의 색상과 문양으로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서정미 뒤에 화려한 표현을 문양과 색채를 통해 상호 보완하여 미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기(이상성):과장미, 활발함으로 고소데와 오비가 서로 부족한 이키함을 보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태함과 다른 점은 문양의 크기가 비교적 크며, 고소데의 바탕색과 문양색에 차이를 두어 과장미와 활발함이 표현되어짐을 통해 의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체념(단순성-일상생활 속의 미):세련미, 소박함으로 체념의 이키는 문양의 크기, 바탕색과 의 큰 명도차, 다양한 문양을 통해 세련미를 나타내고, 고소데와 오비의 색상과 줄무늬, 바둑판형태등을 통해 소박함(일상 속 ‘이키’함)이 표현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키요에에 표현된 고소데와 오비의 문양과 색채는 서로 긴밀한 상호 보완을 통해 ‘이키’의 이원적 긴장감을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은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미적특성은 자포니즘의 세계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기에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미의식을 통한 미적특성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월계.(2013). 풍속화(風俗畫)와 우키요에(浮世繪)에 나타난 여자복식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회*, 12, 69.
- 민병걸.(2010). 일본 그래픽디자인의 실천적 기점으로서의 에도 우키요에 고찰. *한국디자인학회*, 23(4).
- 사사키치카.(2007). 일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 전통미에 대한 연구. *복식*, 55(1), 20.
- 이미림.(2018). 우키요에 출판문화의 특색에 관한 일고찰. *일본문화연구*, 65, 173-178.
- 이상은, 양지나.(2009). 일본 우키요에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작품에 나타난 문양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1(2).
- 임미현.(2018). 조선후기 미인도와 일본에도시대(1603-1867)우키요에 미인화와의 관계성 고찰. *역사와 담론*, 88.
- 홍지연.(2017).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본 민화와 우키요에의 비교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017, 167-169, 177-180.
- 고바야시다다시, 이세경 옮김.(2004). 우키요에의 미(美). 서울: 이다미디어.
- 아키야마 테투카즈, 이성미 옮김.(1992). 일본 회화사. 서울: 예경.
- 코이케미츠에.(2005).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서울: 어문학사.
- 九鬼周造, 이윤정 옮김.(2001). 이키의 구조. 서울: 한일문화교류센터.
- 北村哲郎, 이자연 옮김.(1999). 日本 服飾史, 서울: 경춘사.
- 元井 能.(1969). 日本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 河上繁樹.(2008). 江戸時代の小袖に関する 復元的な研究について. *東西学院大学美学論究*.
- 漢韓大辭典.(1975). 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 Andreas Marks.(2015). *Japan Journeys*, Tuttle Publishing.
- 김정윤.(2012). 일본 우키요에에 나타난 기물문양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수정.(2007). 조선시대 후기와 에도시대의 직물에 표현된 식물무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화.(2006). 구키슈조(九鬼周造)의 '이키'의 구조 연구-에도시대 미의식의 현대적 해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운경.(2007). 에도시대 우키요에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나.(2009). 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승화.(2015). 현대 의상에 나타난 에도(江戸) 복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세희.(2005). 우키요에 작품연구-목판화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음정선.(2005). 한국과 일본의 전통 색채관과 복색에 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고은.(2007). 슌쇼쿠 우메고요미에 나타난 '이키'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무석.(2017). 일본 우키요에 미인화에 나타난 고소데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